

[사회]

사립학교 96% 법정부담금 안낸다

광주 89억 중 17억 납부 불과...시 교육재정 악화

광주지역 사립 중·고교 재단들이 법정 의무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광주시 교육위원회 윤봉근 위원은 22일 열린 제156회 임시회에서 “사학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은 채 교육청 지원금에만 의존해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교육 재정 압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이 윤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한해 광주 시내 전체 33개 사학법인, 69개 중·고교 가운데 95.7%인 30개 법인, 66개 중·고교가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광학원(정광중·고) 0.8%, 호남기독교학원(수피아여중·고) 1.1%, 남암학원(동아여중·고) 2.2%, 유성학원(세종

고) 2.6%, 춘광학원(경신여중·고) 3.4%, 설월학원(설월여고·동일전자정보고) 3.5% 등 6개 법인 11개 중·고교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5%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보문학숙(보문고)·무양서원(비아중)·동명학원(동명고) 등 3곳은 납부율 100%를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광주지역 전체 사학법인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이 89억1천800여만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19.4%인 17억2천700여만원에 그쳐 부족액 71억9천100여만원을 시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할 셈이다.

윤 위원은 “이 같은 실태는 사학이 사실 상 국·공립학교와 자원조달에 있어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며 “사학 재단의 탈법적인 재정 운영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정 사립학교

법의 조속한 정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학재단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재산 규모가 워낙 작으니까 수익률도 높지 않아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정부담금 미납 상황을 사학법인 경영평가에 반영,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황태준기자 hwangtae@kwangju.co.kr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2005년도) (단위:천원, %)

| 법인명 | 학교명 | 법정부담금 | 법인연소득 | 비율 | 순위 |
|---------|------------------------|-----------|-----------|-------|----|
| 보문학숙 | 보문고 | 161,771 | 161,785 | 100.0 | 1 |
| 무양서원 | 비아중 | 91,931 | 91,931 | 100.0 | 2 |
| 동명학원 | 동명고 | 35,792 | 35,792 | 100.0 | 3 |
| 삼육학원 | 호남삼육·호남 삼육고 | 76,152 | 44,979 | 59.1 | 4 |
| 인성학원 | 인성고 | 163,922 | 80,000 | 48.8 | 5 |
| 청송학원 | 송덕고 | 151,433 | 55,000 | 36.3 | 6 |
| 민대학원 | 광덕중·고 | 254,320 | 79,400 | 31.2 | 7 |
| 유은학원 | 동성중·여중, 동성고, 광주여상고 | 453,677 | 139,261 | 30.8 | 8 |
| 조선대학교 | 조대부중·여중, 조대부고·여고 | 463,078 | 140,364 | 30.3 | 9 |
| 실례시오학원 | 실례시오중·고 | 196,611 | 59,067 | 30.0 | 10 |
| 삼례시오녀학원 | 삼례시오여중·여고 | 164,849 | 49,470 | 30.0 | 11 |
| 죽송학원 | 죽송중·중앙여고, 금호고, 금피공고 | 713,245 | 212,297 | 29.8 | 12 |
| 송의학원 | 송의중, 송신공고 | 348,908 | 96,905 | 27.8 | 13 |
| 송일학원 | 송일중·고 | 256,653 | 55,100 | 21.5 | 14 |
| 풍신학원 | 문성중·고 | 257,269 | 54,000 | 21.0 | 15 |
| 송암학원 | 진흥중·고 | 246,323 | 50,167 | 20.4 | 16 |
| 석산학원 | 석산고 | 129,921 | 23,000 | 17.7 | 17 |
| 서경학원 | 서경중·고 | 281,016 | 36,000 | 12.8 | 18 |
| 정성학원 | 임곡중, 광일고 | 131,328 | 13,050 | 9.9 | 19 |
| 송대학원 | 죽재고, 전남여상고 | 323,359 | 30,000 | 9.3 | 20 |
| 홍북학원 | 대평고, 서진여고 | 451,146 | 41,300 | 9.2 | 21 |
| 유영학원 | 서석중·고 | 258,568 | 23,000 | 8.9 | 22 |
| 고려학원 | 고려중·고 | 274,354 | 23,701 | 8.6 | 23 |
| 송강학원 | 동신중·여중, 동신고·여고 | 558,732 | 41,569 | 7.4 | 24 |
| 우성학원 | 대동고 | 136,671 | 10,000 | 7.3 | 25 |
| 우신학원 | 대성여중·여고 | 257,813 | 15,000 | 5.8 | 26 |
| 송일학원 | 송일중·여중, 송일고·여고, 송일여정보고 | 583,522 | 30,000 | 5.1 | 27 |
| 송암학원 | 설월중·고, 동일전자정보고 | 293,597 | 10,400 | 3.5 | 28 |
| 종광학원 | 경신중·여고 | 292,519 | 10,000 | 3.4 | 29 |
| 유성학원 | 세종고 | 111,913 | 2,953 | 2.6 | 30 |
| 남암학원 | 동아여중·여고 | 301,282 | 6,764 | 2.2 | 31 |
| 호남기독교학원 | 수피아여중·여고 | 260,008 | 2,809 | 1.1 | 32 |
| 정광학원 | 정광중·고 | 238,000 | 2,000 | 0.8 | 33 |
| 총 계 | | 8,918,642 | 1,727,065 | 19.4 | |

“내가 인조인간이나? 풀 보기도 싫다. 나오지 마라”
 “가수가 아니라 스트림 댄서가 맞지 않나?”
 “또 벗게? 돈 떨어졌나 보네”
 “그냥 누드나 찍고 그만 좀 나와라”
 “이제 이런 이미지는 한물 갔어. 식상한데 들리자 없지”

“유니 자살 배경은 악플 탕”

네티즌 자성론 확산...어제 영결식 엄수

가수 유니(본명 허운·26)의 자살 배경이 우울증 외 ‘악플(악성 댓글)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네티즌 사이에 자성론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17면>

유니 소속사의 한 관계자는 “유니가 22개월 만에 컴백한다는 보도가 나간 후 자기 기사를 보며 댓글로 인해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었다”며 “소속사에서 ‘신경 쓰지 마라. 악플도 관심의 표현이 아니겠느냐’며 위로하고 다독여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악플의 내용은 노출과 성형에 대한 강한 비판과 무시가 대부분. ‘초절정 섹시합창’으로 컴백 하는 유니의 기사마다 달린 댓글은 90% 이상 악플이었다

빈소가 마련된 인천 은누리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고인의 한 친구는 “유니가 평소 인터넷에 올라온 자신에 대한 헐뜯 때문에 힘



정규직 전환 촉구 시위
 전국의 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회원 40여명은 22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정규직 전환 쟁취 결의대회'를 갖고 사서·급식 보조원 등 일선 학교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위정라기자 jrwi@kwangju.co.kr

국도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키로

빠르면 내년부터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국도의 횡단보도에 조명등이 설치돼 보행자의 안전 사고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최근 끝내고 도로지침 개정에 착수했으며 산업자원부와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의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추진은 최근 들어 인적이 드문 국도의 횡단보도에서 야간 중 운전자의 과속으로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 국도의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조명등 설치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조명등 설치 방식은 기존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가로등의 조명 색깔을 바꾸고 조도 등을 높여 횡단보도 부분을 강조하며 아울러 횡단보도 표시면에 반사경도 설치해 운전자들이 야간 운전 중에도 멀리서 횡단보도임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환뉴스

구름꽃 피었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았다.

1월 23일
 (음 12월 5일)
 ◇전국날씨

서울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목포 밀물 < 04:53 썰물 < 10:08
 17:22 썰물 < 22:39
 여수 밀물 < 12:02 썰물 < 05:34
 ---: 18:09

▲해돋이 07:38 ▲해질 17:51 ▲달돋이 10:08 ▲달질 22:3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짜 | 24(수) | 25(목) | 26(금) | 27(토) | 28(일) | 29(월) |
|-------|-------|-------|-------|-------|-------|-------|
| 날씨 | | | | | | |
| 최저/최고 | -1/8 | -2/6 | -2/2 | -3/1 | -4/2 | -4/3 |

양·한방 공동 병원 설립 가능해 질 듯

보건부, 의료법 개정 추진

앞으로 양·한방 협진이나 공동 병원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의사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의 공동개원과 함께 다른 종별의 의료인끼리 고용이 가능토록 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진료비를 공개하고 환인이나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병원급 이상의 중·대형 의료기관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토록 하는 등 영세한 의료기관이 다른 큰 병원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한 의사가 소속 병·의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리랜서 의사제’가 도입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단체들이 이번 개정안에 반발, 오는 25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의료단체장 간담회에 불참하기로 하는 등 반발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연환뉴스

전남대병원 근로자 69% “폭력 경험”

전남대병원 근로자들이 심한 신체적 폭력과 폭언,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광주·화순 전남대병원 일반직 직원(의사 제외) 4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8.9%(340명)가 신체·언어 폭력을 경험했다고 대답했다.

직종별로는 간호직(병동·외래·중환자실·수술실 등)이 77.6%(26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직(방사선사·의료기사) 15.2%(52명) ▲행정직(사무·원무) 7.0%(24명) 등의 순

이었다.

일하면서 성희롱 발언이나 신체적 접촉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3.4%(63명)가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11.3%(53명)은 지금까지 ‘한두 차례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고, 1.9%(9명)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있었다’고 답했다. 특히 답변자 중에는 ‘셀 수 없다’고 써낸 사람도 있었다.

한편 전남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간호사·소독기사·시설과장 등 4명이 직장 내 스트레스로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국채적립금

두려움 없는 미래를 위해...
 국민연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국채적립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월 납입액이 낮고, 국민연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보다 더 빠른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국민연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보다 더 빠른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국민연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보다 더 빠른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국민연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보다 더 빠른 지급이 가능합니다.